

리바이브이스라엘

2020년 8월 28일

"유대인의 왕"

-아세르 인트레이터



예슈아(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붙였습니다(요 19:19, 마 27:37). 이 패는 세 개의 언어(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겨진 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19:22),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인류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 23:43),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시 22:1),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눅 23:46, 시 31:5).** 이 구두 선언은 용서와 은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한편 십자가 상에 쓰인 선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왕국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용서를 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죄를 처리하고 있고, 두 번째 것은 반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새겨진 글은 **시편 2편 2절과 6절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통치 권세의 최고 지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정권의 지도자가 될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권은 온 땅에 세워질 것이며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슈아를 황제로 하는 온 열방을 아우르는 제국이 될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최고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재판관의 역할은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가 결정하고,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주는 것입니다. 왕은 적(이 경우엔 이스라엘의 적을 말합니다 – **슥 12:9, 14:3**)을 멸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상의 패는 예슈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역할을 다 이행하실 것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가 그분의 군주가 될 것인지를 이상한 방식으로 선포하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 식의 권세는 세상적 권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식의 권세는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체제는 정치에 기반하여 자기 잇속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누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인가를 정하는 데에 있어 사랑을 권력보다 더 고귀한 가치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권세에 복종하는 이들에게 권력을 주십니다. 그 원칙은 예수아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십자가는 예수아께서 복종하고 따르는지 보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께서 권세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려는 도덕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 앞에 당신께서 왕 메시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행 10:42 –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행 17:31 –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패를 통해 예수아께서 왕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택함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시험이었고, 부활은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를 본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따르고 복종하고 예수아와 함께 권위를 얻기 위한 양식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8~9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메시아 예수아의 마음이니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빛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사명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원점이 되도록 마이너스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해 주어 플러스가 되게 해 줍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리더십과 권세를 위해 훈련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 말했듯 “왕관을 쓰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명백히, 그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이 예수아의 사명이며 소원입니다.

주: 이스라엘 총리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보고, 저는 저 자리를 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아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왕 삼으려 할 때 자주 피해 달아나셨습니다(요 6:15).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총리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수장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아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

예수아께도 사명, 소명,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소명이라면, 저는 그분이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분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마 24:14**). 초림 때 주님께서서는 구주가 되신 왕이셨습니다. 재림 때는 왕 -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되신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